

# 한국시리즈 특수에...자영업자들 “오늘만 같아라”

### 배달 주문 쏟아지고 음식점·주점 등 오랜만에 ‘복적복적’ “월드컵·V11” 때보단 덜해...치킨 등 일부 업종만 효과

“정말 오랜만에 테이블이 다 차고, 배달 주문도 많이 들어오네요. 매일 오늘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7년만에 광주에서 한국시리즈가 열리면서 지역 민들이 KIA 타이거즈를 응원하기 위해 배달음식을 시키거나 대형 스크린이 있는 식당 등으로 몰리면서 모처럼 지역 자영업자들이 함박웃음을 지었다. 올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폐업까지 고민했던 자영업자들이 한국시리즈 특수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오후 6시 KBO 한국시리즈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광주지역 배달업체에는 주문이 쏟아지고, 술집마다 함께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들로 복적였다.

일부 식당은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하고 배달 주문 접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을 고려하기도 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21일 오후 7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 차평동의 한 술집 테이블 키오스크 화면에는 “주문 폭주로 대기시간이 20분 이상 걸린다”는 안내 문구가 떴다. 손님들이 몰리면서 주방이 주문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민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같이 치킨 먹으면서 응원할 사람 있나요?”, “가족끼리 치킨 시켜두고 경기 시작 기다리고 있습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속속 올라왔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찾는 사람이 많으니 장사할 맛이 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시 서구 차평동의 한 술집에서 지난 21일 테이블 키오스크 화면에 ‘주문폭주!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남구 봉선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정모(여·60)씨는 “요즘 회식도 잘 안하고 외식도 줄이는 분위기라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어제는 오

랜만에 테이블이 가득 찼다”며 “TV로 손님들과 다 같이 응원하더니 정말 신이 나더라. 한국시리즈 특수가 실감이 난다”고 웃었다.

진월동 족발집 사장 박병우(42)씨 역시 “매장 손님도 많고 배달 주문도 한번에 몰려 잠시 배달 주문을 다 못 받았을 정도였다. 남은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은 처제에게 잠시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드컵이나 2017년 한국시리즈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봉선동에서 22년째 치킨집을 운영하는 허동섭(66)씨는 “경기가 안좋다보니 다들 지갑을 닫고 있지 않다. 지난 올림픽 때 특수는 커녕 평소보다도 주문이 적어 아쉬웠다”며 “이번에는 주문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월드컵 등 빅이벤트만큼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월드컵 등 큰 규모의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주문이 2~3배 이상 몰렸지만, 이번

에는 그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치킨 등 일부 업종만 한국시리즈 특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진월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전옥주(여·58)씨는 “한국시리즈 특을 보는 것은 치킨집이나 술집 정도고, 대부분 식당은 큰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저녁에 경기 보느라 다들 집에 들어가니 나을 사람도 안나온다”며 “KIA의 한국시리즈 진출은 좋은 일이지만 장사가 안되니 마냥 즐겁지는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인근 중곡집 사장 이관호(67)씨는 “한국시리즈 특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손님이 1~2명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장사하는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며 “물거나 인건비는 끊임없이 오르고 손님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반짝 특수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독도는 한국땅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22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광장 꽃밭 주변으로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축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호남고속도로, 정체 가장 심하다

### 동광주IC~용봉IC 평일 월 144.4시간·주말 83.8시간

호남고속도로가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정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경기 용인시 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중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구간(천안 방면)은 평일을 기준으로 월 144.4시간의 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 시간은 하루 중 일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50

km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간의 누계를 뜻한다.

호남선은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구간(월 158.4시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정체 시간을 기록했다.

경부선 ‘금토Jct~신양재IC’(136.8시간), 영동선 ‘서창Jct~월곡Jct’(90시간), 수도권제1순환선 ‘하남Jct~도평IC’(90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주말 기준으로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구간은 월 84.8시간씩 정체돼 전국에서 가장 정체 시간

이 길었다. 2위인 영동선 ‘덕평IC~양지TN’(50.4시간)과는 30시간 넘는 차이다.

서해안선 ‘광명역IC~금천IC’(47.6시간), ‘서평택IC~서해대교시점’(42.6시간), ‘당진Jct~서해대교’(40.8시간) 등이 뒤이었다.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구간의 정체 일수는 평일 18일, 주말 8일로 한 달의 86.6%를 차지했으며 주말은 사실상 매일 교통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길이를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정부·기업, 디지털 성폭력 책임있는 대응을”

### 광주·전남 시민단체 촉구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정부와 기업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단체)은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폭력의 책임을 방기한 ‘텔레그램’ 등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은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아님에도 국회와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을 개인 일탈로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지난날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딥픽 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실제로 불법촬영물 소지죄를 포함하 도록 법 개정이 되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 불법 소지죄를 피하는 노하우가 떠올랐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특정 유형의 성범죄가 논란이 될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의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 문구 삭제, 디지털 성폭력 대응 과 예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안 마련,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제 마련 등을 요구했다.

햇살 민우회 활동가는 “기술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 규제’나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착취물 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인권적 관점에서 규제와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

## 전남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권’

### 835곳에 331명...광주는 ‘최고’

전남지역 초·중·고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상담교사는 초·중·고교에 따라 학교에 배치돼 학생들에게 학습·개인·사회적인 상담, 진로발달 등 상담 등을 하는 교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서는 총 835개 학교에 331명의 전문상담(순회)교사가 배치됐다.

전남은 39.6%로, 강원(37.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

반면 광주의 배치율은 53.9%(321개교에 173

명 배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배치율은 48.4%다.

상담은 하위 학생생활지도 업무 등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많은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를 배치한 학교의 비율은 광주 34.9%(321개교에 112명 배치), 전남 28.6%(835개교에 239명 배치)였다.

광주의 전문상담사 배치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5위, 전남은 10위 수준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가 없도록 정원을 늘리거나 행정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손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숙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일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